

사도행전 개관

1. 개요

사도행전(행전, The Acts of the Apostles)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확장 시키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서입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었다면,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을 통한 사역, 즉 그리스도의 사역의 계속(continuation)을 보여줍니다.

2. 저작 연대

- 일반적으로 주후 60~62 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투옥 중일 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 사도 바울의 순교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 시점이라는 점이 견해를 지지합니다.
-

3. 저자

-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Luke)
 - 헬라 문화에 익숙한 의사이며,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 “우리(we)”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는 문체를 통해 직접 동행자였음을 드러냄 (행 16:10 등)
 -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2 부작으로, 예수의 생애(1 권) + 교회의 역사(2 권)라는 구속사의 대서사를 구성합니다.
-

4. 기록 목적

- 역사적 확신을 제공 (눅 1:1-4 과 같은 서문 구조, “테오�필로”에게)
-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확장된 것을 증거
-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선교적 정체성과 신앙의 본보기를 제시
- 사도들의 권위와 복음의 일치성, 교회의 정통성을 뒷받침
- 고난 속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

5. 단락 구분

| 구분 | 내용 |
|--------|-----------------------------------|
| 1-7장 | 예루살렘 중심 - 성령 강림, 초대교회 탄생, 스테반 순교 |
| 8-12장 |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 - 빌립, 베드로 사역, 고넬료 회심 |
| 13-28장 | 이방과 땅 끝까지 - 바울의 선교 여정, 로마로 향하는 복음 |

- 핵심 구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 →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지도이자 주제’입니다.

6. 중심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성령께서 교회와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신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공동체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사명자들의 연합이다.

7. 신학적 이슈

(1) 성령론 (Pneumatology)

- 오순절 성령 강림(2 장)은 신약적 교회의 탄생 사건입니다.
- 성령은 능력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인도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입니다.

(2) 교회론 (Ecclesiology)

-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교제와 기도, 선교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2:42).
- 장로 임직, 안수, 성찬, 회의, 선교 파송 등이 점진적으로 정립됨.

(3) 선교와 구속사의 확장

- 사도행전은 아브라함 언약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사건의 실현입니다.
- 복음은 유대인에서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으로 문화 장벽을 넘어 확산됩니다.

(4) 박해 속의 하나님의 섭리

- 스테반의 순교, 야고보의 죽음, 바울의 고난은 오히려 복음을 홀고 전진시키는 하나님의 전략적 섭리로 사용됩니다 (8:1).

(5) 율법과 은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 예루살렘 공의회(15 장)는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된 이방인 구원 문제를 공식화하며, 복음의 자유와 보편성을 선포합니다.

8. 개혁주의적 입장에서의 사도행전 해석

(1) 삼위일체적 구속사

- 아버지의 계획, 아들의 사역, 성령의 능력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 펼쳐지는 삼위일체적 경륜을 드러냅니다.

(2) 예정과 구원

-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13:48) →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구속사의 주도성이 분명히 강조됩니다.

(3) 말씀 중심의 교회

-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6:4). → 개혁주의 교회론의 핵심: 말씀, 성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공동체

(4) 선교와 문화

- 복음은 문화 초월적 보편성을 가지며, 동시에 문화 속으로 들어가 그 언어와 삶을 변혁시킴 (헬라어 사용, 아레오바고 설교 등)

(5) 고난 속의 하나님의 섭리

- 바울의 억류, 폭동, 법정, 고난조차도 복음 확장의 도구로 사용됨 → 모든 역사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교회의 승리를 확증합니다.